

‘산 넘어 산’ KIA, ‘베테랑’의 힘으로 위기 넘는다

타이거즈 전망대

산 넘어 산, KIA 타이거즈의 고난의 행보는 계속된다.

1위 KIA 타이거즈가 '마운드 위기 타파'를 목표로 새로운 한 주를 연다. 잔여경기 일정 시작되면서 KIA는 5경기를 소화한다.

27일부터 SSG 랜더스와 홈에서 주중 3연전을 갖는 KIA는 30일 하루 휴식 뒤 대구로 가 삼성 라이온즈와 2연전을 갖는다. 쉽지 않은 상대와의 맞대결이다.

KIA는 올 시즌 SSG에 4승 8패의 열세를 기록하

‘4승8패’ SSG와 주중 3연전 5.5게임차 삼성과 주말 격돌 최형우·양현종 투·타 전면에

고 있다. 삼성은 5.5경기 차 밖에 있지만 까다로운 2위다.

무엇보다 KIA의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 KIA는 지난 주말 NC와의 원정경기에서 1승 2패 루정시리즈를 기록했다. 24일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선발로 나왔던 제임스 네일이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기고도 웃지 못했다.

윌 크로우, 이의리가 팔꿈치 수술로 시즌을 마감했다. 윤영철도 척추 피로 골절로 자리를 비웠다. 여기에 '에이스' 네일까지 수술대에 오르면서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KIA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다.

여기에 초반과 다른 흐름을 보였던 최지민도 다시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고, '마당쇠' 장현식도 옆구리 염증으로 잠시 쉬어가게 되면서 마운드에 부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마운드 위기 타파를 위해 투·타의 베테랑이 팀 전면에 나선다.

지난 6일 KT와의 홈경기에서 우측 내복사근 부상을 입고 재활군이 됐던 '원조 해결사' 최형우가 복귀 준비를 끝냈다.

그는 지난 주말 진행된 두산과의 퓨처스리그 3경기에 모두 출전해 컨디션 점검을 끝냈다. 25일 경기에서는 홈런포도 기록하면서 풀업을 기다리고 있다.

올 시즌 기록 많은 타선에 '꾸준함의 대명사' 최형우가 안정감을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발진의 유일한 '생존자' 양현종의 어깨도 무겁다. 양현종은 27일 선발로 나서 SSG 로에니스 엘리아스와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무거운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하다. 이번 승리는 양현종에게도 의미가 있다.

양현종은 지난 2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KBO리그 최다 탈삼진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됐지만, 이날 4-4로 맞선 상황에서 등판을 마무리하면서 10승 달성에는 실패했다. 170이닝을 향한 도전도 남아있

는 만큼 양현종이 '대투수'의 모습으로 굳게 마운드를 지켜줘야 한다.

주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정해영을 중심으로 한 '뒷문 싸움'이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KIA 마무리 정해영은 지난 24일 NC전에서 2-0의 승리를 지키면서 시즌 26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어깨 통증으로 40일 넘게 자리를 비웠지만 '세이브 1위' 삼성 오승환(27개)과 1개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계속된 부진으로 재등장의 시간을 보낸 오승환이 26일 엔트리에 재등장한 상황. 뒷문 싸움의 카드를 쥐고 있는 두 선수의 성적에 따라 두 팀의 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골 결정력 부족 광주FC, 울산에 2연패

K리그1 28라운드 0-1로 져 28일 코리아컵 2차전 '벼랑 끝'

광주FC가 김판곤 감독으로 새판을 짰 울산HD에 4일 만에 다시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가 지난 2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K리그1 28라운드 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앞서 21일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에서 0-1패를 기록했던 광주의 연패다.

광주가 68%의 점유율을 가져왔지만 결정력 싸움에서 밀렸다. 이날 패배로 코리아컵 결승과 파이널A를 동시에 잡으려던 광주의 계획이 틀어졌다.

4일 만에 다시 울산을 만난 광주는 초반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전반 7분 아사시가 골대를 때리는 위력적인 슈팅을 선보이면서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전반 20분에는 이근희의 슈팅이 울산 골키퍼 조현우에 막혔다.

2분 뒤 다시 한번 아사시가 움직였다. 아사시가 페널티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가슴적으로 원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그리고 바로 울산의 반격이 이뤄졌다. 장시영의 슈팅이 나왔고,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발로 견어내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이후 광주 이근희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골대를 두드렸지만 소득 없이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 투입된 가브리엘이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24분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은 이희군이 상대 수비진의 견제에 넘어졌고, 공이 뒤로 흘렀다. 공을 잡은 가브리엘이 위력적인 슈팅을 선보였지만 조현우의 발끝에 공이 막히면서 득점이 무산됐다.

이후 루빈손이 광주를 괴롭혔다.

후반 34분 중원에서 공을 넘겨받은 루빈손이 역습에 나서 골키퍼를 마주하고 슈팅까지 시도했다. 공이 살짝 골대를 벗어났지만 후반 39분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리며 광주를 압박했다. 이번에는 김경민이 공을 품에 안으면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후반 41분 야고의 발은 막지 못했다.

고승범의 패스를 받은 야고가 원발로 공을 때렸고, 김경민이 몸을 날려봤지만 한뼘이 부족했다. 이날 광주의 골키퍼는 흔들리면서 야고의 시즌 10호골



지난 2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울산HD의 K리그1 28라운드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 기록됐다. 광주가 그냥 물러서지는 않았다.

후반 47분 아사시가 다시 한번 슈팅을 날렸지만 조현우가 몸을 날려 골을 막았다. 후반 50분에는 정호연이 왼쪽에서 넘긴 공을 박태준이 이어 받았다. 페널티 지역에서 공을 잡은 박태준이 슈팅을 하기 전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지만 기다렸던 페널티킥이 선언되지는 않았다.

이여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에 앞서 가브리엘

이 먼거리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나면서 광주의 패배가 확정됐다.

광주는 패배에도 7위는 지켰지만 6위 포항스틸러스는 7점 차다. 8위 제주유나이티드에는 승점 5점 차로 앞서있다.

코리아컵에 이어 리그 맞대결에서도 패배를 기록한 광주는 28일 울산 안방으로 가 코리아컵 2차전 '벼랑 끝 승부'를 펼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중 유도 '전국 메쳤다'

추계 전국 초·중·고 유도연맹전...박원탁·임동화 등 금2·은1·동1

광주체중 유도 선수단이 '제52회 추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겸 국제 유·청소년 파견 선발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북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박원탁은 남중부 2학년 -55kg급에 출전해 준결승에서 이준혁(해동중)과 맞붙어 외기업어치기 절반, 누르기 한판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박원탁은 결승에서 정태웅(동영중앙중)을 상대로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

었다. 임동화는 남중부 1학년 -81kg급 준결승에서 전가운(송도중)을 발다리 절반, 안다리 한판승으로 제쳤다.

이후 임동화는 결승에서 만난 최윤범(성남중)을 업어치기 되치기 절반, 발다리 한판승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중부 2학년 -45kg급에서는 이백산이 은메달, 남중부 3학년-66kg급에서는 강수빈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서 '한·중·일 양궁 친선 교류 대회' 27일 개막

광주국제양궁장에서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중·일 양궁 친선 교류 대회'가 열린다.

중국에서는 왕강 북경시 양궁협회장과 천첸린 총감독 등 15명으로 구성된 북경시 양궁 대표팀이, 일본에서는 국가대표·상비군 선수단 80여 명이 이번 교류 대회에 참가한다.

'국제 양궁 중심도시' 광주를 찾은 중국과 일본 선수단은 광주시청·광주은행·남구청, 광주여대·조선대·광주체고 선수단 60여 명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다수 배출한 광주 양궁을 경험하고 동반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류 대회에는 기보배(2012 런던·2016 리우), 최미선, 이순원(이상 2016 리우), 안산(2020 도쿄)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

해, 2024 파리올림픽 중국 여자양궁 단체인 은메달리스트 리지안, 현대 양궁월드컵 여자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리링 등 세계적인 양궁 선수들이 함께 한다. 대회는 개인전, 혼성전, 단체전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내년 9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앞서 경기장을 미리 경험하는 중·일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강 북경시 양궁협회장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다수 배출한 광주만의 정서와 느끼고 배우며 북경과 광주 양궁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이탈리아 배구 명문 '몬차' 한국 온다

한국 '팀 코보 올스타'와 9월 8일 격돌...28일 예매 시작

한국과 이탈리아의 남자배구 슈퍼매치가 펼쳐진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탈리아 명문 '베로 발리 몬차'와 지난 시즌 V리그 우승팀인 '대한항공 점보스', V리그 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팀 코보 올스타'의 경기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몬차는 이탈리아 프로배구 슈퍼레가의 1부 상위 팀으로, '한국 청소년대표' 출신 이유진을 비롯해 2024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한 미국의 테일러 에이브릴(미들블로커), 브라질의 페르난두 크렐링(세터), 캐나다의 아투어 슈왈츠(아포짓) 등 세계적 선수들이 소속돼 있다. 이유진은 2023년 U19 세계 선수권에서 주전

으로 활약하며 30년 만의 동메달을 합작한 아웃사이드 히터로, 지난 3월 이탈리아 프로배구에 정식 선수로 등록됐다.

몬차는 오는 9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7일 대한항공 점보스, 8일 팀 코보 올스타와 수원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팀 코보에는 김상우 삼성화재 감독의 지휘 하에 김지한(우리카드), 임성진·신영석(이상 한국전력), 허수봉·정광인(이상 현대캐피탈) 등 베테랑 선수들이 합류해 이번 슈퍼 매치에 힘을 보탠다.

이번 글로벌 매치는 28일 오후 3시부터 예매가 진행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금호고 듀오’ 정호연·엄지성, ‘홍명보호’ 승선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1, 2차전 국가대표 명단 발표

광주FC의 '살림꾼' 정호연과 스완지시티에서 새 출발을 한 엄지성이 국가대표팀에서 재회한다. 강원FC의 '고등학생' 양민혁도 대표팀에 승선하면서 손흥민의 기록 도전이 나선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이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9월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 2차전에 나설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금호고 듀오' 정호연과 엄지성이 태극마크를 달고 댈다.

광주 이정호 감독의 황태자이자 중원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호연의 두 번째 대표팀 발탁이다.

정호연은 지난 3월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에서 치러진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 대표팀에 선발, 원정 4차전을 통해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다.

광주 에이스로 활약하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스완지시티로 떠난 엄지성도 홍명보호에 승선했다.

2022년 1월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처음 국가대표가 됐던 엄지성은 아이슬란드와의 친선경기를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르고, 데뷔골도 장식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양민혁을 비롯해 황문기(강원), 이한범(미트윌란), 최우진(인천) 등 4명이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특히 강원의 1위를 이끌고 있는 '초신성' 양민혁은 이달의 선수,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 등 '개인상 3관왕'에 이어 만 18세 132일에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이와 함께 양민혁은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순위 13위에 랭크됐다.

18세 152일의 손흥민(토트넘)에 앞서 국가대표가 된 양민혁은 '캡틴'과 미리 팀워크를 맞춰보게 된다. 양민혁은 내년 1월 토트넘 정식 입단을 앞두고 있다.

양민혁은 손흥민의 기록에도 도전하게 된다.

손흥민은 2011년 1월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18세 194일에 골을 넣으면서 남자축구 역대 최연소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